

전북대 교수들, '시국선언' 박근혜 사퇴 촉구

# “국기문란 행위 주범은 대통령 본인”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도내 사회 각계각층의 연이은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북대교수들이 '국기문란 행위'의 주범은 박근혜 라며 박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태석 일반사회교육과 교수를 비롯한 전북대 교수들은 3일 대학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했다.

교수들은 “점점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국가권력을 사유화했고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자신의 측근과 비선실세들이 권력을 남용하고 오용하도록 방조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우리 전북대 교수들은 대다수 국민들과 함께 분노하면서, 무능하고 자격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즉각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민들을 보호하고 통합하려고 하기보다 끊임없이 분열시키고 적으로 만들어왔다”며 “세월호 대참사 때 적극적으로 즉각적인 재난대응을 하지 못해 많은 희생자를 냈을 뿐 아니라 이후 수습 과정에서도 형식적인 사과만 했을 뿐 오히려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해 다수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고 비판했다.

또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드배치 등의 정책결정에서도 대다수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소용을 거부하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게다가 반정부 집회에 참여한 백남기 농민에게 살



3일 전북대학교 대학본부 앞에서 전북대 교수들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 국정농단 사태에 책임을 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인적인 물대포를 쏘 죽음에 이르게 해 놓고도 사과사과 부검을 강요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반인륜적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참으로 참담한 것은 이러한 국정수행의 배후에 최순실이라는 비선실세가 있었다는 사실”이라며 “대통령이 그동안 주권자인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적인 국무조직의 논의마저도 외면하면서 일개 사인에게 의지해 중요한 국가적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은 민주주의 사

회에서 이뤄졌다고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국기문란 행위를 솔직히 인정하기보다 책임 회피와 거짓말로 사태 축소에 급급하고 있다”며 “지금 시급한 일은 이 사태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는 것이며 그 주범인 대통령과 비서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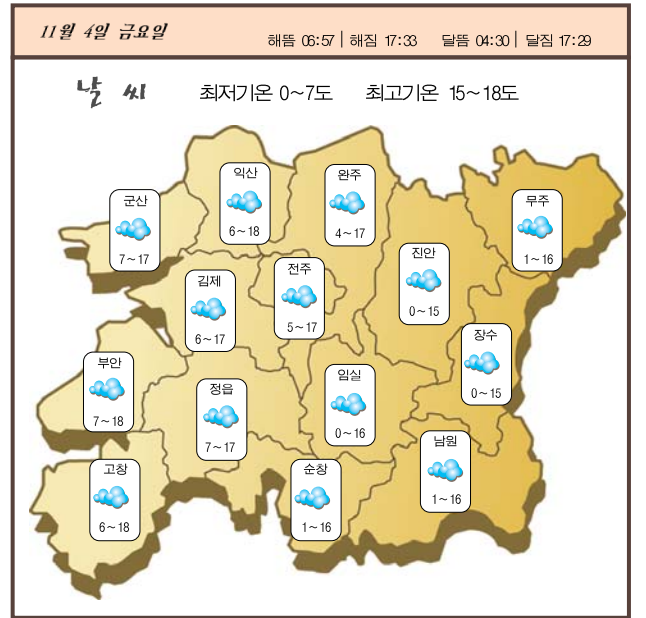
이날 기자회견은 전북대 교수 7명이 참석했지만 전북대 교수 133명의 교수

가 이메일 등을 통해 이날 시국선언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

또 이날 시국선언과 별도로 전북대 교수협의회도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있다.

전북대 관계자는 “국립대 특성상 개별 대학 교수회에서 별도로 하기보다 전국 국립대학 교수회 연합회를 통해 단일화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조만간 기자회견을 통해 시국선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 전북대 검도 동아리 '정검회' 전국대학검도연맹전 개인 우승·단체 입상

전북대학교 검도 동아리 '정검회'가 최근 열린 제47회 추계 전국대학검도연맹전에서 개인전 우승을 비롯해 단체전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한국대학검도연맹이 주최한 이번 대회는 대학생 선수가 참여하는 1부 와 선수 고교 선수 출신이 참여하는 2부, 그리고 대학 동아리에서 검도를 배운 동아리부 등으로 나누어 경기가 치러졌다.

이 대회에서 전북대 정검회 학생들은 동아리부에 출전해 김유신 학생(경영학과 15학번)이 남자 개인전 우승을, 정진영 학생(영어영문학과 13학번)이 여자부 준우승을 각각 차지했다.

또한 단체전에서도 이동형(기계설계공학부 10학번)·김민선(전기공학과 08학번)·안광건(동물생명공학과 10학번)·유지수(융합기술공학과 15학번)·김유신(경영학과 15학번) 학생팀이 3위에 오른 것을 비롯해 여자 단체에서도 정진영(영어영문 13학번)·신승이(경영학과 15학번)·김세희(동물자원공학과 13학번) 학생팀이 3위에 입상했다.

정검회는 1983년 창립된 전북대 전통의 동아리부 검도의 예를 통해 정신 수양은 물론 학생 간 소통과 화합을 이루고 있으며 매년 각종 생활체육 대회에 참가해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다.

【고민형기자

## 전주시-안동시, 문화인재 양성 '맞손' 잡아

### 전주문화재단-세계탈문화예술연맹, '호·영남 문화인재 양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도시인 전주시와 경북 안동시가 문화인재 양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주문화재단(이사장 김승수 전주시장)과 세계탈문화예술연맹(회장 권영세 안동시장)은 3일 전주소리문화관에서 조봉업 전주시장과 권영세 안동시장, 장길 전주문화재단 사무국장, 윤병진 세계탈문화예술연맹 사무총장, 권재환 안동축제관광재단 사무처장, 신현수 이마교 문화예술대학 학장과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영남 문화인재 양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주문화재단과 세계탈문화예술연맹은 전통문화도시이자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 손꼽혀온 양 도시를 대표하는 문화단체로 양 기관은 이날 협약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사업과 문화기획·연출, 전시, 공연, 인력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이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통해 풍부한 역량을 갖춘 호·영남 지역 문화인재 양성은 물론 지

역 간 벽을 허무는 문화교류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전주문화재단과 세계탈문화예술연맹은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 열흘간 전주소리문화관에서 호·영남의 풍부한 전통문화자원의 융합과 교류를 통한 지역문화의 자생력 확보와 미래세대 교육을 통한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호영남 창작탈 전시·공연 교류전'을 진행한다.

'호남의 소리와 영남의 춤이 만나 빛나는 전통을 계승한다'를 주제로 진

행되는 이번 교류전에서는 하회별신굿 탈놀이 식전공연과 개회식, 업무협약식에 이어 전주의 풍속놀이현황과 안동의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탈 전시 등 한국과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등 세계 여러 나라의 탈이 전시된다.

전주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호·영남 문화교류의 다짐이 될 것 이다"라며 양 도시간 화합과 친목도모의 발판 마련으로 상상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세계탈문화예술연맹은 안동시가 세계탈 문화예술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창립했으며, 현재 56개국 131단체 및 개인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 2014년 유네스코 국가지문기구로 인가를 받기도 했다.

【김영재기자

## 전주시, 한복다올마당 개최 한복 발전방향·관련 산업 육성 현안 논의

전주시가 한복인기를 확산시키고 한복산업 육성을 위해 전문가, 종사자와 함께 머리를 맞댄다.

전주시는 3일 한국전통문화전당 세미나실에서 전주 한복의 발전방향과 관련 산업 육성 등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1회 한복다올마당을 개최했다. 한복다올마당은 복식전문가와 한복 관련 산업 종사자 등 민간전문가 11명과 관계 공무원을 포함한 총 12명으로 구성 향후 한복산업 정책의 발전방향과 사업추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쳐나가기로 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위원들의 위촉장 수여와 함께 위원장을 비롯한 집

전주매일의 창간 8주년을 축하합니다

정읍시지부 지부장 유재도    칠보농협 조합장 권혁빈    샘골농협 조합장 허수중    농협중앙회 정읍시지부

정읍농협 조합장 유남영    태인농협 조합장 이문석    순정축협 조합장 최기환

활토현농협 조합장 옥익호    신태인농협 조합장 류근백    정읍원협 조합장 손사선

같이의 가치 NH 농협